



계성산우회보

제 43 호

- 발행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무 : 신대수

2007년 7월 27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8월 정기산행

경북 포항 내연산(710m)에서

이번 8월 5일, 제91차 정기산행은 기존 산행과 좀 색다르게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혹서기와 휴가철이 겹치는 관계로 작년과 비슷한 이벤트 형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행과 해수욕장에서의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산행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휴가철이라 차량들이 많이 정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행지는 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포항 보경사로 유명한 내연산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산행후 파티는 근처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산행코스는 본인 마음대로 선택하시되, A코스를 선택하신 회원들은 오후 12:30분까지 보경사 주차장으로 집결하여,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화진해수욕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B코스를 선택하신 회원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주차장에 집결하시면 버스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우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참가는 8월 1일(수)까지 FAX. 606-7569 또는 이메일 sk5793@hanmail.net 또는 H.P 011-251-9613, 011-525-78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파티는 각종 주류와 숯불구이, 수박 등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니 점심 도시락은 간소하게 준비하셔도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우회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기가 어려우니 찬조 가능한 회원님들과 각 기수별 산우회에서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 내연산 보경사.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시원한 폭포.

내연산은 바위 하나 볼 수 없는 육산으로 주능선은 밋밋하지만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계곡미가 빼어난데다 무려 12개의 폭포가 이어져 절경을 뽐낸다.

이 골짜기를 내연산 12폭포골 또는 보경사 계곡 또는 청하골이라 한다. 이십리가 넘는 보경사 계곡은 관음폭포, 연산폭포, 잠룡폭포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소와 협암, 기와대, 선일대, 비하대, 학소대 등의 기암절벽이 어울려 절경을 이루고 있다.

제1폭포 쌍생폭(쌍생폭), 제2폭포 보현폭, 제3폭포 삼보폭, 제4폭포 잠룡폭, 제5폭포 무풍폭을 거쳐 제6폭인 관음폭과 제7폭포 연산폭 일대가 이 계곡의 클라이맥스다. 쌍폭인 관음폭은 쌍굴인 관음굴, 폭포 위로 걸린 연산적교(구름다리), 층암절벽과 어우러져 환상적이다. 연산적교를 건너면 높이 20m의 연산폭이 학소대 암벽을 타고 힘찬 물줄기를 쏟아 내린다. 보경사에서 연산폭까지는 약 3km, 1시간 남짓한 오솔길이다.

내연산은 여름산행지로 적격이다. 산과 계곡,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름등산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산행지다. 12폭

포골 계곡산행에 해수욕장이 지적이다.

산행코스는 보경사로 들어가 보경사 오른쪽으로 올라가 문수산(622m), 정상인 내연산을 거쳐 계곡으로 하산하는 방법(4시간 소요)과 문수산에서 바로 계곡으로 내려오는 방법(2시간30분 소요), 12폭포 계곡으로 올라가 역으로 하산하는 코스가 있다.

보경사에서 문수산 쪽으로 오르는 코스는 30여분 정도는 가파른 오르막이지만 그 이후에는 하이킹코스 같은 완만한 등산로에 좌우에 소나무가 우거진 소나무숲이 계속되기도 한다. 가족산행으로도 안성맞춤이므로 문수암을 거쳐 계곡으로 하산하는 코스가 가장 적당하다.

12폭포골로 오르면 고찰 보경사에서 1.5km 지점부터 폭포의 행렬이 시작된다. 보경사를 뒤로 한 채 완만한 계곡을 따라 1.5km쯤 걸어가면 제1폭포인 쌍생폭포. 낙차가 5m로 두 가닥의 물줄기가 다정하게 떨어져 내린다.

쌍생폭포를 지나면서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험한 길이 이어진다. 12폭포의 하이라이트는 관음폭포와 연산폭포,

관음폭포 아래의 수정같이 맑은 소와 폭포 옆 층암절벽 아래로 뿜린 관음굴, 폭포위로 걸린 철제 구름다리 연산적교는 그 어울림이 절묘하다. 연산적교를 건너면 낙차 20m의 연산폭포. 물줄기가 학소대 암벽을 미끄럼 타듯 떨어져 내린다. 12폭포 중 낙차가 가장 크다.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A코스(짧은코스) : 보경사 ~ 문수산 ~ 계곡 하산 ~ 연산폭포 ~ 보경사 (약 2시간 30분) 또는 보경사 ~ 쌍생폭포 ~ 관음폭포 ~ 은폭포 ~ 보경사 (약 2시간)

▷B코스(긴 코스) : 보경사 ~ 문수산 ~ 내연산(삼지봉) ~ 은폭포 ~ 관음폭포 ~ 보경사 (약 4시간30분)

글 · 황성길 (51회 · 직전회장)

<8월 정기산행 안내>

- ▶일 시 : 2007년 8월 5일(日) 07:00 (시간 지켜 주세요.)
- ▶장 소 : 모교 정문 앞
-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과일, 간식류, 여분의 옷가지 외
-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 ▶회 비 : 1만5천원(가족1만원)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산우회 탐방

계성 60회 산우회

계성 60회 산우회를 우리 동기끼리는 육산회라고 부른다. 우리 동기회 취미동아리에는 골프, 바둑, 테니스, 마라톤, 당구, 등산 등이 있는데 우리 육산회에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60회는 전통적으로 등산에는 강한 면이 있었다. 1970년대 전국에서 열렸던 각종 등산대회에서 참가했다면 우승밖에 몰랐던 계성고

다운 산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눈이 쌓인 팔공산을 11명의 회원들이 오른 것이 창립산행이다. 이어 매월 둘째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잡아서 2004년 2월까지 사정이 있었던 3번을 빼고는 정기산행을 해왔다. 그중에서도 2002년 1월 6일 총동창 산우회와 함께 17명의 회원이 부산 금정산에 갔다가 우리 육산회만 남아서 부산 동

회장인 박영태와 총무인 주이광이 그 뒤를 이어 육산회를 맡으면서 다시 산우회는 크게 활력을 띄게 된다. 매월 둘째 일요일의 행사를 총동창회 산우회의 행사에 맞춰 첫째주로 바꾸고 가능하면 총동창회 산행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특유의 친화력을 가진 마당발 박영태 회장, 그리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주이광 총무의 활약으로



▲ 5월 총동창 산우회 등반대회 참가시 기념촬영.

산악부의 전성기가 바로 우리의 학창시절이었기에 등산에는 어느 다른 동기회보다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육산회의 결성은 새 천년을 맞이하니 이제 건강에 신경을 써야할 나이가 되었고 또 이미 다른 취미동아리가 결성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등산도 모임을 갖자는 의견이 동기회 모임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서 당시 계성 OB산우회 회장을 맡고 있던 한재권을 초대회장으로, 총무엔 모교 산악부 지도교사인 윤재호가 맡게 되었다. 첫산행은 그 의미도 있고 하니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2001년 1월 14일 팔공산 동봉을 목표로 수태골에 모였는데 하필 그 날이 그해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었다. 거기다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제법 많이 쌓여 처음부터 산행

기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가 마지막 열차를 타고 대구로 오면서 열차안에서 주책없이 수학여행 기분 내던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즐거운 추억거리다.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대 회장에 조무현, 총무에 이병욱이 맡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에 회장인 조무현은 대구시 치과의사회장에, 총무인 이병욱은 대구시 교육청 장학사가 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잠시 육산회는 침체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다 2005년 3월부터 지금

더욱 많은 동기들이 육산회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육산회는 요즘은 총동창 산우회와 함께하는 어떤 기수의 산우회보다도 아마 가장 잘 나가는 동기회 산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영태 회장의 이러한 열정에 힘입어 총동창회 등반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등을 하였고 내년에도 우승은 이번이 일어나지 않는 한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글 · 윤재호(60회, 모교 산악부 지도교사, 한국산악회 대구지부장)



회장 박 영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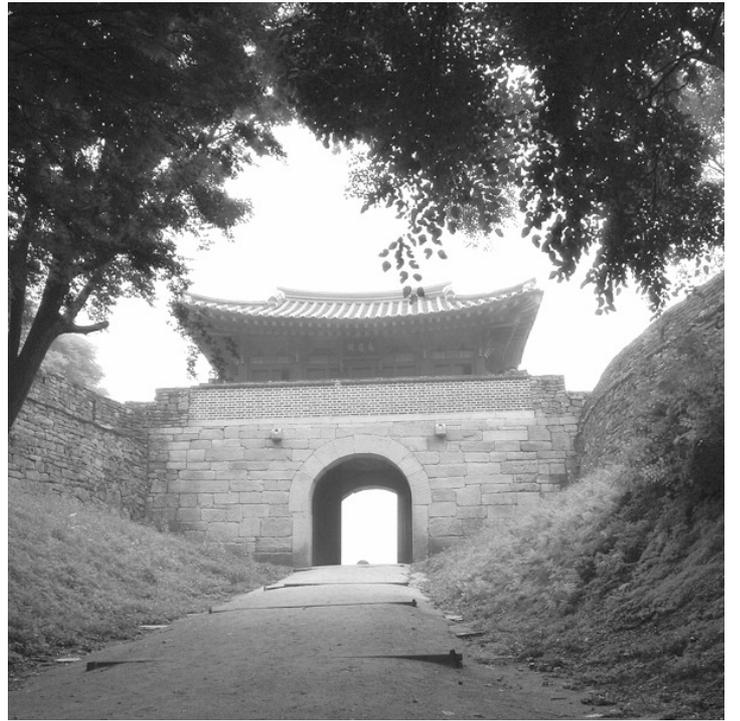


총무 주 이 광

7월 정기산행 문경새재에서

7월 1일, 제90차 정기산행은 당초 지리산 반야봉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국립공원 등산로 폐쇄에 따라 그 일정을 바꿔 문경새재에서 실시하였다. 새벽부터 거센 바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져 정기산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여 걱정하였는데 모교 출발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출입여부를 확인하니 산행이 불가하다하여 긴급히 속리산 문경대로 산행지를 변경. 그러나 그 곳 또한 출입 통제되어 어쩔 수 없이 문경새재로 최종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문경새재에 도착하니 비는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부는 가운데 간단한 스트레칭과 교가제창을 마치고 제3관문에서 1관문까지의 워킹을 시작하였다. 여러 회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평탄하고 부드러운 마사토 길은 그냥 걷기대회 같은 코스였다. 각 기수별 회원들은 3관문을 지나 제2관문 근처 정자 및 주변 식당에 자리를 펴고 이른 점심식사를 즐겼는데, 우중(雨中)식사 또한 운치가 있었다. 점심식사후 삼삼오오 제1관문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하였는데 태조 왕건 사극 촬영장 등을 관람하고, 오후 3시경 전원 제1관

문을 통해 워킹을 마무리 하였다. 약 8~9km정도의 워킹은 정식산행에 비하면 운동량이 작지만 나름의 즐거움은 있었다 할 것이다. 집행부로서 조금 아쉬운 점은 참가 신청을 하고도 장맛비 때문에 무단 불참한 회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집행부는 기상 조건이 어떠한 간에 항상 안전은 고려하되 정기산행은 반드시 실시함을 여러 회원들에게 강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정원 관계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해 참여해주신 63회 산우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48회: 류청용 >51회: 황성길, 권영호 부부, 김명숙, 이동희 >52회: 김시우, 서정환, 신개식, 김신용, 정하룡 >55회: 정인재 부부 >60회: 김경동, 김성렬, 김영종, 김영호, 김인중 부부, 박영태 부부, 윤재호 부부, 안규상, 정인호, 주이광, 진동현 부부 >61회: 석재호, 유진, 김성수 부부, 이승엽, 김홍, 남인길, 신문탁 >63회: 이세탁 부부, 김형국, 이종원, 고수환 부부, 이일우, 장종국 부부, 김재동, 이탁 >67회: 송준석 >70회: 신대수, 박상훈 (총 50명) 글 · 신대수(70회 · 총무)



▲ 문경새재 제3관문 조령관.

꽃집 자은병

경조화환 | 관엽 | 동서양란 | 꽃바구니

전 · 국 · 배 · 달

최 돈 문 (56회 · 동기회 총무)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96(동인꽃도매상가입구)
 TEL : (053)424-0099 FAX : (053)424-4499
 H.P : 010-8822-1400
 E-mail : cdm1030@hanmail.net

산행상식 기초 독도법



지형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기 위해 지도 보는 법을 잘 익혀둘 필요 있어

지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관한 모습과 사물, 여러 가지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을 일정한 축척에 맞춰 규정해 놓은 여러 가지 기호와 선과 색, 도형으로 표시해서 평면상(종이)에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3차원의 입체적인 지구표면을 2차원의 평면으로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보통 안내지도는 등산로와 구간별 소요시간, 야영장, 샘터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 지도를 잘 볼 줄 모르는 초보자도 산행시간과 위치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등고선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지형을 판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다만 지형도는 등산을 위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보이는 등고선과 여러 가지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 지형도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하며, 지형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배울 지도 보는 법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 지도상에서 목표지점 찾아가기

지도상에서의 목표지점 찾아가기는 지도상의 나의 위치(A지점)에서 지도상에 있는 목표지점(B지점)을 찾아 가는 방법이다. 즉 나의 위치(A지점)는 알고 있지만 목표지점(B지점)은 어느방향으로 가야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지도상에서 나의 위치(A지점)와 목표지점(B지점) 간의 방위각을 측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측정된 방위각으로 진행하여 목표지점(B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1) 지도상의 방위각 측정

- ① 지도상에서 현재 나의 위치와 가고자하는 목표지점을 찾는다. (A, B지점)
- ② 나침반의 우변(또는 좌변)을 현재 위치(A지점)에서 B지점에 맞춘다. 이때 반드시 진행선의 화살표(나침반 가운데 큰 화살표)방향이 B지점방향으로 되게 나침반을 위치해야 한다.
- ③ 나침반의 다이얼을 돌려 다이얼 원안에 있는 북방지시화살표(또는 보조지시선)와 미리 그어놓은 자북선(빨간선)과 일치(또는 평행)되게 한다. 이때 북방지시화살표의 화살표 방향이 자북선의 북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④ 나침반의 진행선(눈금테)에 나타난 다이얼의 숫자가 현재 위치(A)에서 목적지(B)의 방위각이다. 즉 현재 위치로 부터 B지점은 자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48° 만큼 돌아간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자북선을 미리 그어놓지 않은 상태라면 도북선을 기준으로 방위각을 측정한다 다음, 도자각(도북과 자북의 편차)을 측정된 방위각에 더해주면 자북선 기준 방위각이 된다.

(2) 현장에서의 방위각 진행

이렇게 지도상에서 측정된 방위각은 '지도상의 XX봉은 실제 어느 방향에 있나?' '지도상의 B지점으로 가려면 실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등에 이용된다. 즉, 측정된 지도상의 방위각 방향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현장에서의 방위각 진행이다.

- ① 지도상에서 측정된 방위각만큼 다이얼을 돌려 눈금테에 맞춘다. 바로 측정된 상태라면 돌릴 필요가 없이 맞추어져 있을 것이다.
 - ② 나침반을 왼손에 들고 가슴의 중앙 앞부분에 위치한 다음, 북방지시화살표 (또는 보조선)와 빨간자침(북침)이 일치하도록 몸을 돌린다.
 - ③ 나침반의 진행선방향이 지도에서 측정된 목표지점의 방향이며, 북방지시화살표와 북침을 일치시킨 상태로 진행하면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 그러나 실제 산행에서 이와같이 방위각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등산로는 직선으로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지점을 직선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목표지점의 방향을 확인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 있는 길을 찾아내서 길을 잡는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자연현상으로 방향 찾기

- ◇ 해

봄, 가을에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한낮에는 남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진다. 그러나 겨울에는 해가 남동쪽에서 뜨고 남서쪽으로 진다.
- ◇ 별

어두운 밤에는 북극성을 찾으면 정확한 북쪽을 알 수 있다. 북극성은 북두칠성의 α와 β 거리의 다섯 배 되는 곳에 작은 곰자리의 밝게 빛나는 마지막 별이 있는데 이것이 북극성이다. 북극성의 방향은 항상 북쪽으로 진 북극이라고 한다.

- ◇ 달

달의 모양과 시간을 보고 방향을 찾는 방법으로 초승달은 새벽 6시쯤에는 동쪽 하늘에 있고 저녁 6시쯤에는 서쪽 하늘에 있다. 반대로 보름달은 저녁 6시쯤에 동쪽에서 떠서 새벽 6시쯤 서쪽으로 진다. 상현달은 밤 9시쯤 서쪽 하늘에 떠 있고, 하현달은 새벽 3시쯤 남쪽 하늘에 떠 있으며, 밤 9시쯤에는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 ◇ 그림자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편평한 곳에 긴 막대를 곧게 세우고 그림자의 끝 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 그림자 끝이 5~10cm 정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다.(1m쯤 되는 막대는 10분~20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 그런 다음 움직인 그림자 끝을 다시 표시하고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자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 쪽이 서쪽이고 나중에 표시했던 쪽이 동쪽이다.

- ◇ 나무

나무가지가 많이 자라고 잔가지가 길게 뻗어 있는 쪽이 남쪽이며,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의 나이테를 보았을 때 나이테가 넓게 보이는 쪽이 남쪽이고 꺾질이 두꺼운 쪽이 북쪽이다.

- ◇ 이끼

바위에 이끼가 많은 쪽이 북쪽이다.

- ◇ 바람

봄, 여름에는 보통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가을과 겨울에는 대개 북쪽에서 바람이 분다.

- ◇ 집

우리 나라 집들은 대부분 남향집이 많다. 그러나 한 두 집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집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 ◇ 묘지

무덤이나 비석은 대개 남쪽을 향하고 있다.

- ◇ 시계

시계의 시침을 태양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고 있을 때 시침과 12시 방향과의 각도를 2등분한 방향이 남쪽이다. 그리고 편평한 곳에 수직으로 세운 가느다란 나무나 성냥개비의 그림자와 시계의 시침을 일치시키면 더 정확하다.



조경공사업 | 조경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엔지니어링(조경설계)

대표이사
박종후 (67회)

구미사무실: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814-1 상가내
대구사무실:대구 달서구 본동 1135-3(현대B/D 505)
TEL : (054)458-6106 | (053)526-9092
FAX : (054)458-6105 | (053)527-9092
Mobile : 011-539-0131 E-mail : shinhoo7@chol.com

집행부 소식

- 7월 12일 차기산행지 결정 및 편집회의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 7월 25일 차기산행지 답사를 김시우회장, 서정환 부회장, 신대수 총무가 다녀왔다.

기별동정

◆ 재경총동창 산우회

7월 22일 북한산 삼천사계곡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1회

7월 22일 상주 청화산에서 29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2회

7월 22일 청도 역산에서 21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55회

7월 8일 충북 괴산 쌍곡계곡에서 40여명의 회원이 동기회 야유회 겸 산행을 하였다.

◆ 제63회

7월 22일 밀양 구만산에서 24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대구로 오는 길에 청도에 있는 유명 패운탕집에서 하산주를 즐겼다.

◆ 제65회

7월 15일 앞산에서 출발하여 청룡산을 거쳐 수변공원으로 13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67회

7월 8일 밀양 백운산에서 22명(가족동반)의 회원이 38차 정기산행을 하였다.

◆ 제69회

7월 22일 앞산에서 8명의 회원이 산행을 하였다.

◆ 제70회

7월 25일 법원건너편 한라산 돌구이에서 산우회 신입생 환영회겸 임시총회를 가졌다.

◆ 제71회

7월 13일 앞산에서 7명의 회원이 야간산행을 하였는데 우(雨)중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준비해온 무침회와 통닭 등으로 꾸민 만찬을 즐겼다.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으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사람과 곤충의 흥겨운 만남!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 동문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를 여는 친환경농업! 곤충Bio 산업!

2007 예천 곤충 바이오 엑스포
YECHON INSECT BIO-EXPO

- 주제 : 미래를 여는 친환경 농업! 곤충BIO산업!
- 부제 : 예천으로부터의 메세지, 곤충과의 만남-곤충나라에서 꿈과 즐거움을!
- 컨셉 : 농업의 신 블루오션, 곤충
- 기간 : 2007. 8. 11(토)~2007. 8. 22(수) 총12일간
- 장소 :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 곤충바이오엑스포행사장
- 주최 : 예천군
- 후원 : 행정자치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예천군 부군수 구 본 학 (55회)

웃으면 건강해요

» 남자는 불

- 10대 : 성냥불-슬쩍 끊기만해도 활활 타오르니까 타고 꺼지고 연속 8회는 기본
- 20대 : 장작불-겉으로 보기에 강한 화력인데다 근처에만가도 뜨겁기 때문
- 30대 : 연탄불-겉으로 보면 그저그래도 은근한 화력을 자랑한다. 밤새 "Go"
- 40대 : 화롯불-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자세히 뒤적거려보면 불씨가 살아 있다.

- 50대 : 담뱃불-힉껏 빨아야 불이 붙는다.
- 60대 : 반딧불-불도 아닌 것이 밤마다 설치니까.
- 70대 : 성화불-4년에 한번씩 탄다.
- 80대 : 도깨비 불-있다는 소릴 들긴 들었는데 본적이 없다.

» 아내가 무서울 때

- 30대 : 아내가 백화점 갈 때-쇼핑간 아내가 굶은 카드대금 걱정 때문에

- 40대 : 아내가 샤워할 때-시들어가는 남편들에겐 밤이 무서버.(여자 성적 활성화 최고 나이가 47세라나?)
- 50대 : 아내가 화장할 때-바람난 것이 아닌가 싶어
- 60대 : 아내가 보따리 살 때-아내가 집 나갈까봐
- 70대 : 아내가 도장 찾을 때-이혼하자고 할까봐
- 80대 : 아내가 목공소갈 때-자기 관 짜러 갔나 싶어
- 90대 : 아내가 지게를 챙길 때-산에 갔다 버릴까봐



등산장비 전문점-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